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57> 네가 관음을 알아?

중국 보타낙가산의 최초 관음성지는 '불공거(不空去)관음원'이다. 지금은 이 지역전체가 사찰로 가득한 절골을 이루고 있다. <불조통기(佛祖統記)>에 의하면 일 본승려 해악이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가지고 귀국하려 하였으나 암초 및 풍랑을 만나 출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 절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조통기>보다도 140년 이전인 1124년 저술인 서경(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전체스토리는 비슷하나 주인공은 신라사람으로 되어있다. 다만 알바 다에서 배짱을 막았다는 암초이름인 신라 초(新羅礁)는 두 책 모두 같다. 불공거는 '가기 싫다'는 말이다. 고려 진각해심(진문연술)1106칙 '장경무찰(長慶無刺)'이라는 공안 속에 '관음이 고려에는 가지않으려고 한다(不空去高麗)'는 말이 나온다.

어쨌거나 관음이 일본이건 해동 땅이

갔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명청한 놈, 꺼져버려!" 큰방으로 가서 정진이나 해!"  
그리고는 자문자답한다. 선어록에서는 이를 대어(代語)라고 한다.  
"아이구, 속 터져!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선사스님께서 관음을 불으신다면 저는 미륵으로 대꾸하겠습니다."

마조선사가 84명의 선지식을 배출한 까닭에 세상사람들은 그를 관음보살의 응화라고 불렀다. 그 곳에서 20년동안 원주를 한 승려가 있었는데 절 살림을 하면서 문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관리가 감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다. 당시 절들은 거의 반쯤은 관공서 규칙에 준해 운영된 까닭이다. 감옥에서 원주는 이렇게 생각했다.



### 마조선사 모시던 원주, 회계문제로 옥살이 스승 도움으로 20년간 금전 거래내역 기억

건 모두 자기 싫다고 했다는 중국적 발상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장경선사에게 어떤 답자가 붙었다.  
"고려의 승려가 관음상(像)을 조성하여 명주(明州)에서 배에 실으려고 했습니다. 여럿이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도 꿈쩍을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개원사(開元寺)에 모시고서 현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관음이 꿈을 나타내지 않는 국토가 없거늘 어찌해서 고려에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그렇거나 말거나 한국 낙산사 흥련암이 중국의 불공거관음원과 분위기가 너무 닮아 놀랐다.

관음성지는 바닷가가 주 무대지만 바다에 버금가는 호수도 무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호남이라는 말은 동정호 남쪽지방으로 당시 선종의 주 활동무대였다. 당연히 관음과 동정호가 함께 묶이게 된다.  
운문선사가 새로 방부를 들인 남자에게 물었다.  
"관음이 왜 동정호(洞庭湖) 속으로 들어

"우리 마조 스님은 성인인지 범부인지 모르겠다. 20년동안 시봉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고통스런 과보를 받게 되다니."

마조선사는 그런 원망을 알게 됐고, 이어 시자에게 항을 사르게 한 다음 단정하게 선정에 들었다. 그러자 원주는 옥중에 서 홀연히 마음이 열려 20년동안 사용한 돈과 물건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입으로 말하는 것을 서기에게 받아 적게하니 계산이 틀림없었다. 역시 선정력과 함께 관음화신의 가피력은 가이였다.

이제 마무리 짓자. '관음의 불공거'에 대하여 장경선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록 몸법신을 나타내는 것은 두루하지만, 모습만 보는 이는 치우침이 있느니라."  
뒷날 법안선사는 이에 대해 따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걸 별어(別語)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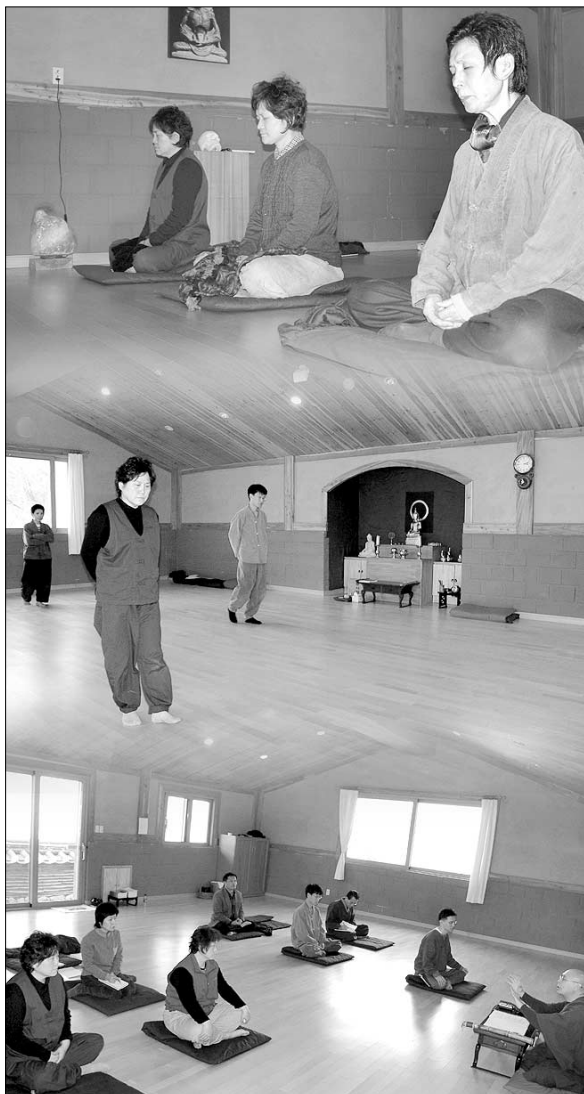
"너희들이 관음을 알아(識得觀音未?)"  
■ 원술(원술(조계종 포교원 신도장))

# 무더진 감각 되살리니 '가뻐'

## 마하보디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체험기

'알아차림', 자각의 또 다른 이름이다. 끊임없이 감각의 더듬이를 바짝 세워놔야,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앓든 겉든 깨어 있어야 참나의 변화 무쌍함을 포착해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위빠사나 수행체험은 현미경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전광석화 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참나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왜 위빠사나는 '깨어있는 참여'를 중시할까? 1983년 미얀마 우 뻬디 마 스님에게 출가한 혜조 스님이 5년 전부터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경주 마하보디선원에서 그 답을 찾았다. (054)746-9750



하게 단속할 문지기로 '알아차림'을 중시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데에서 위빠사나 수행이 시작된다는 의미였다.

'육근의 문'을 잘 단속하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감각기관을 세밀히 살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좌선은 공장 몸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뼈근함을 호소하다 법당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밤벌레들이 미친 듯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깨어 있는' 마음을 잘 챙기지 못하고, 통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며 알아차림을 회피하려 했던 그 마음자리가 단번에 보였다.

행선시간도 알아차림의 연속이었다. 양말부터 벗었다. 발바닥과 땅과 부딪치는 감각을 온전히 알아차림 육신에서였다. 팔짱을 끼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의 감각을 챙겨보니 천 리 만 리 길 행군도 거뜰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 "배고픔 그대로 흘러가니 배고프되 배고프지 않아"

밤 9시, 마지막 좌선을 끝내고 묵언을 했다. 수행자들의 체력담을 듣기 위해서였다.

199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가불자 위빠사나 수행동아리 '선우회' 창립 멤버였던 이영희 교수(63·경성대 무용학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서 무심코 접한 물건들이 매일 봤던 그 모습이 아님을 위빠사나 수행에서 경험하게 됐다"며 "감각기관에서 인식하는 대상들이 보다 더 섬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간의 위빠사나 집중수행 체험. 일상에서 자각하지 않고 또 못했던 감각을 '깨어있는 참여'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늘 저음처럼. 이것이 위빠사나 '깨어있는'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될 때 오온을 꿰뚫어 삶의 현상을 순간순간 포착하여 그 변화를 보고 이것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현상 이전의 본성을 파악함으로써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사진/경주=김철우 기자

집중수행은 '좌선-행선'을 홀·씩수 시간으로 나눠 1시간씩 이어진다. 법문도 수행지도 점검과 함께 하루에 한번 진행된다.

## 하루 18시간 좌선·행선 이어져 찰나 찰나 알아차림에 몰입

한 뼛소리도 연신 흘러나왔다. 오직 '포르륵' 소리에 '배고픔'이란 느낌이 일어남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사라짐은 자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배고픔'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좇을 즈음, 배고픔은 배고픔 그대로 흘러갔다. 있는 그대로 배고픔을 알아차리니, 배고프되 배고프지 않았다. 잠깐의 졸음도 알아차림의 단서가 됐다. 졸다 깨니 다리의 통증이 순간에 다가왔다. 눈 귀 코 등 육근(六根)의 문을 닫고 쫓았더니, '알아차림'이 저만치 도망가 있었다. 다시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는 것도 없이 깨고 나니 저런 다리가 알아차림이었다. 심지어 두 다리를 고쳐 앉는 사이에 들리는 바지갠이 스치는 소리조차도 알아차림 그대로였다.

오후 2시가 되자, 혜조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어김없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알아차림은 마음행김이자 주시입니다. 생동하는 '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대상을 늘 처음으로 경험하세요."

스님은 지금 이 순간, 무상(無常)하게 흘러가는 찰나를 알아차리라고 법문했다. 육근을 철두철미

## 인천 범명사, '금강경' 백가해 간경 법회

인천 범명사(주지 선일)는 2월 26일부터 100일간 오후 7시 인천 가좌동 법당에서 <금강경> 백가해 간경 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스님 및 중진 대덕을 초청해 열리는 이번 간경법회에서는 <금강경> 사경, 특경, 아미타 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32)577-5108

## 동국대 사회교육원, '명상 기치유사 강좌'

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유광진)은 3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50분에 진행되는 '명상 기치유사 강좌'에 수련생을 모집한다.  
포천 중문의과대학 보건의학원 박세준 외래교수가 강의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명상개론, 명상치유, 심리치유, 심리요법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 8만원. (02)2260-3728

##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진화주의는 본래는  
인내, 자비를 보냅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문가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로구 청량동 154-1 전화 010-6230-2113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1334-9490, 334-9491 야간: 0311706-3060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기문 명리학**  
(특강: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원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근처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시주학, 기문둔갑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1. 동충하초 자체만을 선별·추출하였으므로 동충하초 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2. 동충하초 성장주기 중 유용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의 개체만을 선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3. 살아있는 동충하초를 추출하여 함유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 살아있는 동충하초 100%추출액입니다.
5. 본 제품은 생물자원개발연구소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 용량: 100ml×60포  
◆ 특별판매가: 125,000원

●연구개발자: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식품 안전성 검사: 시험번호 제 G02128 호  
●성분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3895 호  
●상표등록번호: 40-2001-0031242

※ 본 제품 판매의 수입금은 법정 조성 기금으로 사용되며 두루 동참하시어 자선단체에 걸쳐 무한한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동 산 60번지  
정토사 063)255-0733  
법연 스님 010-9282-0733